http://dx.doi.org/10.35704/YJH.60.5

임진왜란 속에서 작동한 전통적 공동체의 특징*
- <선양정 진사일기>를 대상으로

신해진**

- 목 차 -

Ⅰ. 왜 공동체인가
Ⅱ. <선양정 진사일기>는 어떻게 남겨지고 무엇을 남겼나
Ⅲ. 임진왜란 속에서 작동한 전통적 공동체
1. 동맹체의 편제와 구성원 명부[名帖]
2. 동맹체의 성씨별 구성원 양상
3. 동맹체의 기저적 관계망
4. 동맹체의 사회적 유대
Ⅳ. 전통적 공동체의 특징 및 앞으로의 과제

|국문초록|

이 글은 현시대에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 전통사회에서 작동한 공동체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실기문학에 주목하였다. 이에, 정희맹의 <선양정 진사일기>를 대상으로 문집이 간행된 전후 상황과 일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속에서 전통적 공동체

* 이 글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Four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의 제2회 국제학술대회(2022.1.14.)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하고 보충한 것으로, 동국대학교 김일환 교수와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고마움을 표한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가 작동되는 양상과 그 특징을 고찰하였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선양정 진사일기>가 수록된 ≪선양정문집≫은 1875년 초간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그 이전에 <선양정 진사일기>의 일부분이 ≪수성록(守城錄)≫에 포함되어 1753년에 개간된 바 있다. ≪수성록≫ 개간에 참여한 이들은 임진왜란 때 창의한 의병 55인의 후손이었다. 그 후기(後記)에 따라 선양정이 손수 쓴 일기를 근간으로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선양정의 일기는 개인적 체험의 기록뿐만 아니라 동맹체가 작동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선양정 진사일기>는 영광에 있던 향교의 유림을 중심으로 한 의병의 모병 및 군량미의 조달 과정 등이 날짜별로 기술되어 있고, 이때 정희맹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선양정 진사일기>에 기록된 동맹체는 당시 영광군수가 공석인 상황에서 결속된 것으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결속하게 한 심층적 동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압해정씨와 혼인 관계로 맺어진 이가 55명 중 42명이나 되는 것을 통하여 그 요인이 바로 혼반 관계에 기반한 연결망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동맹체는 고을 수령의 부재로 인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작동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실기문학 속에 담긴 전통적 공동체의 자화상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임진왜란, <선양정 진사일기>, 정희맹, 공동체, 동맹체, 혼반

Ⅰ. 왜 공동체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겪은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염병의 공포는 인류에게 단지 위생의 문제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만든다. 현시대는 전통 시대와 견주었을 때 이웃과의 유대가 여지없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팬데믹의 출현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막고 더 많은 사생활과 개인공간을 추구하는 현실로 전환케 함으로써 연대라는 공동체의 지향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인류를 더욱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또는 커뮤니티)'[1]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사용되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훈김에 이끌려 따뜻한 질감을 지닌 그 무엇으로 우리네 사고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또한 대단한 열정으로 그것을 감싸 안으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출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동체가 갖는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더 깊은 차원의 동기에서 발현된 것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발현의 저변은 개인적인 편리성의 단순한 추구, 이익을 위한 합리적 동의 등에 관여하는 개인적 의지 아래에 놓여 있다.

또한 공동체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들보다 분명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일부일 때 우리는 개인들보다 훨씬 커다란 형태의 소속감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정체성 확인과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확보된다. 이때 호혜

1) 예컨대 공동체문화, 공동체예술, 마음공동체, 교육공동체, 밥상공동체, 주사랑공동체, 커뮤니티 플래닝, 커뮤니티 케어, 안전커뮤니티 맵핑 등등

적 관계란 공유한 이해가 반영되는 것이고 지역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되는 것에서 구축된다. 결국 공동체 이해와 요구의 반영이 자연스레 부인할 수 없는 공동체 관계의 연대를 환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언제나 위협적으로 추정되는 타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연대라 할 것이다.

하지만 명사보다는 주로 관형어로 '공동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시대에서 마주하는 그것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려면, 우선 전통사회에서 작동한 공동체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시대의 것과 동일하게 대체되며 환원될 수 있는 지속적 유효성을 지닌 전통적 공동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진 않는다. 공동체의 메커니즘과 환경은 끊임없이 자기 갱신의 운동성이 있게 마련인 바, 전통적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유의미성을 지니기가 어려울 것이고 단지 향수(鄕愁, nostalgia)와 가까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헤겔이 말했듯,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서야 그 날개를 편다고 한 것처럼, 전통적인 공동체가 무의미해졌다고 한탄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 공동체의 본질적 형상을 '문학의 장(場)'에서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는가를 자문해볼 일이다. 공동체를 언급하면서도 한 번일망정 제대로 '문학의 영역'에서 구현된 공동체의 근원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모되고 있었는지 등등을 살핀 적이 있었었느냐 하는 성찰적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 고전문학 중에서도 실기문학(實記文學)이 그러한 질문에 일정부분 적정하게 답할 수 있는 문학 양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기는 무엇보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 체험하거나 견문한 것을 소재로 삼아 쓴 문학으로 사실성과 기록성을 중요한 양식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학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하자가 있는 문학'으로 낙인찍혀 역사 속에 묻히고 외

면당하다가 근자에 이르러 비로소 주목된 실기문학을 통해 그 속에 담긴 공동체의 기억을 소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실기문학 가운데 정희맹(丁希孟, 1536~1596)의 '선양정 진사일기'는 전란 속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작동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지라,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학계에서 그간 외면하였지만, 이 글의 고민은 선인들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궤적을 복원해 이해하려는 것일 뿐, 없는 것을 다듬고 꾸며서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흔히들 '다중심사회'라고도 일컫고 '탈경계 시대'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하나의 헤게모니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일컫는 것인데, 그 이전보다 덜 구획화되거나 결정화되어 예기치 못한 전환과 이탈을 통해 중심부(또는 중심지)에서 낙오된 현시대의 유동적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전통적 공동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시하는 공동체의 형상이 방금 포장에서 꺼낸 근사한 것인 양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얻는 것은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이지만, 그 자체에서 유의미함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닌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 번 변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나 전통적 공동체의 실상에 행여 근접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특징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아울러 드러낼 때 비로소 바람직한 논의의 장에 수원(水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시대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랄 뿐이다. 공동체 자체의 메커니즘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하려는 운동성이 있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도 많이 엄존하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과 결정 불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예측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Ⅱ. <선양정 진사일기>는 어떻게 남겨지고 무엇을 남겼나[2]

먼저, 정희맹의 '진사일기'가 어떻게 남겨질 수 있었는지 살핀다. 임육(任焴, 1736~?)이 나주 목사였던 1797년 당시 지은 정희맹의 <행장(行狀)>[3]에 따르면, 시문(詩文) 15권을 남겼으나 병자호란 때 거의 다 산실되고[4] 시부(詩賦)와 일기 몇 권만이 겨우 남아 가장(家藏)되어 오던 것을 근간으로 엮은 것이 바로 ≪선양정문집≫이다. 이 문집에 <일기[5]>가 수록되어 있다.

문집을 간행하기 위한 첫 움직임은, 정희맹의 증손자 정계(丁桂, 1638~1717, 丁鈇의 손자)가 함평이씨 이옥(李玉, 1532~1596)의 증손 이익형(李益馨, 1626~1699)에게 부탁하여 '선양정유고(善養亭遺稿)'의 서문을 받아두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유최기(兪最基, 1689~1768)가 1746년 11월 20일 영광군수로 좌천되었다가 선양정유고를 읽고 1747년 10월 하순에 발(跋)을 썼는데, 정희맹의 후손 가운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두었겠으나 이때는 그 유고가 간행된 흔적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 뒤 정희맹의 8대손 정운로(丁雲老, 1766~1819, 丁鍵의 7세손)가 가장(家狀) 초고를 마련해 행장을 1797년 임육(任焴)으로부터 받았으며, 묘지명(墓誌銘)은 사헌부 지평이었던 김수조(金壽祖, 1742~1810)로부터 1801년에 받았으나 지금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묘갈명(墓碣銘)은 1803년에 우찬성 송환기(宋煥箕, 1728~1807)로부터 받았으며, 1804년에 송환기의 교정

2) 『선양정 진사일기』(정희맹 원저, 신해진 역주, 보고사, 2020)의 '머리말'에서 필요한 내용을 옮긴 것임.
3) 위의 책, 78~95면.
4) 병자호란 때 산실되었다고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병자호란 당시 호남은 알다시피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1764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아울러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충량과(忠良科)가 실시된 적이 있는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언급된 것으로 짐작된다.
5) 원전에는 단지 '일기'로 명명되어 있으나, 임진년 4월 13일부터 갑오년 1월 3일까지의 일기이라서 필자가 '진사일기'로 이름하였다. 이 일기를 지칭할 때면 '선양정 진사일기'라 한다.

(校正)과 편차(編次)를 받아 정리해 두었다. 이 정리본이 1875년 초간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정희맹의 사후 280년 만에 빛을 본 것이다. 한편, 정희맹의 11대손인 정영두(丁永斗, 1873~1952, 丁鍵의 10세손)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서문을 1905년에 받고 정희맹의 차남 정건(丁鍵, 1565~1618)의 문집 ≪성경재집(誠敬齋集)≫과 함께 1905년에 4권 2책을 목활자로 인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간행되어 남겨진 ≪선양정문집≫에 <선양정 진사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임진왜란의 같은 시기에 전란을 겪은 것을 기록한 일기이면서도 김해(金垓, 1555~1593) 의병장의 활동을 기록한 ≪향병일기(鄕兵日記)≫, 선산 부사 정경달(丁景達, 1542~1602)의 관군이 치른 육전(陸戰)을 기록한 ≪반곡난중일기(盤谷亂中日記)≫와 달리, 정희맹의 일기에는 의병이든 관군이든 왜군과의 전투 장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전라남도 영광(靈光)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이순신의 제해권 장악에 따라 왜적의 직접적인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로 의병(義兵)을 모집하고 의곡(義穀)을 모아 각 의병 진영에 보내었으며, 해상을 통해 의주(義州)의 행재소까지 운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영광에 있던 향교의 유림(儒林)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정희맹이었다. 약 20개월 동안, 그가 영광성에서 생활했던 과정을 비롯하여 전라도 의병의 다른 지역 활동 상황, 조정의 대처, 헛소문에 놀라는 민심, 의병의 모병 및 군량미의 조달 과정, 혈육들의 처참한 피난 과정 및 죽음뿐만 아니라 의병에 참여했다가 서증(暑症)에 따른 귀가, 전쟁 속에서 제사와 차례 지내는 모습 등과 함께 그 자신이 의병으로 나서서 성을 지키며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날짜별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양정 진사일기>이다.

이렇게 볼 때, 정희맹의 사후 100년 정도 지나면서 준비가 시작되어

280년이 지나서야 간행된 문집에 수록된 것이 <선양정 진사일기>인 관계로, 후손이나 문중, 향촌 사회 등에 의해 산삭과 변개가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도 있으니, 저자가 생전에 남긴 생생한 문헌자료 그대로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1875년 ≪선양정문집≫ 초간본이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선양정유고의 '진사일기' 일부분이 별도의 서책으로 개간(開刊)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英祖) 29년(1753) 9월 19일과 10월 3일에 의하면, 한광회(韓光會, 1715~?)가 호남어사(湖南御史)로서 호남의 여러 고을을 감찰하고 돌아간 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영광의 수성유적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임진왜란 때 창의한 55인의 후손들이 ≪수성록(守城錄)≫(壬辰守城錄)이란 이름으로 1753년에 엮어 봉정사(현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소재)에서 목판본을 간행하였는데, 이의규(李義圭)가 쓴 <수성록 후기>와도 부합한다.[6] 이 후기에 또 "간행본은 오직 선양정공(善養丁公: 정희맹)이 당시 손수 쓴 일기를 다시 간행하여 배포하려고 하였다(刊本, 則惟以善養丁公當時手墨日記, 爲重印布)."[7]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수성록≫은 '선양정 진사일기'와 비교해 보면 1592년 10월 18일자에 기록된 명첩(名牒)과 수성법(守城法)을 근간으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8] 이 ≪수성록≫의 간행에 있어서 수정도유사(修正都有司)는 정치형(丁致亨, 1693~1760, 丁希說의 5대손)·이수형(李洙馨)·이사윤(李師

6) 앞의 책, 180면. "수성록(守城錄)을 그 전에 인쇄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무진년(1748)에 향중(鄕中)의 사우(士友)가 불갑사(佛甲寺)에 함께 모여 각기 재력을 모아 막 인쇄하려다가 불행히도 다툼이 생겨 중지해 버리고 말았다. 올해의 중추(仲秋)에 어사(御史) 한광회(韓光會)가 남하(南下)하여 유적(遺蹟)들을 들추어 본 뒤 빨리 간행(刊行)하도록 독촉하면서 주상(主上)께 아뢰어 포창(褒彰)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시 판각(板刻)하여 책이 이루어지니 100년 동안 문갑 속에만 감추어져 있던 것이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지는 책이 된 것이다." 곧 수성록은 약간의 논란을 거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위의 책, 180면.

8) ≪수성록≫은 「임진왜란수성명첩서」, 「임진수성록」, 「수성명첩」, 「수성법」 등이 실려 있는 체제이다.

尹), 인출 유사(印出有司)는 류한철(柳漢哲)·송지경(宋之璟)·이사탁(李師鐸)·이응엽(李應曄)·이사함(李師咸)·이정규(李廷圭)·강주옥(姜柱玉)·강이철(姜爾徹)·오진일(吳震一)·김종(金琮)·이복원(李馥遠)·이시걸(李時杰)·이종식(李宗植)·정명욱(丁命煜)·이유진(李裕鎭)·이원규(李元規) 등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임진왜란 때 창의한 의병의 후손이었다. 이들을 통해, 임진왜란 와중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읍성을 지켜낸 사례와 그 지켜낸 유림들의 전란극복 의지가 기록된 문헌자료가 또 한편으로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선양정의 <연보>에 의하면 서문은 유최기(兪最基)로부터, 발문은 원경하(元景夏, 1698~1761)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영광 임진수성록(靈光壬辰守城錄)』에는 원경하의 발문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이의규(李義圭)의 후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원경하의 발문에 다음의 내용이 씌어 있다.

> 오성(篔城: 靈光)의 여러 의로운 선비들이 군량을 쌓아 놓고 성을 굳게 지켰으니, 그 뜻이 어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에 있지 않았으랴. 그런데도 유독 자취도 없이 모두 없어져 칭송되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이것은 그들이 건재(健齋: 김천일)와 제봉(霽峯: 고경명)처럼 목숨을 바친 이가 없었고, 오성(篔城) 또한 진주(晉州)와 금산(錦山)처럼 짓밟혀서 결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여러 의로운 선비들의 맹세는 백세토록 빛나고 또렷하리니, 오성(篔城)은 아마도 민멸하지 않으리로다.[9]

원경하가 영광의 사적이 알려지지 않음을 두고 토로한 답답함에 기인했으랴만, 이 문헌은 오늘날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1호'로 지정되어 『영광

9) 위의 책, 178~179면.

향토문화사료』 제18집(오성창의기념사업회·영광문화원, 1998)에 소개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널리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 원경하의 답답함은 여전하리라 여겨진다.

아무튼 '영광 임진 수성록'이 간행되었을 때 정희맹의 '수묵일기(手墨日記)'를 근간으로 했다고 한 것을 통해, 그 당시까지는 정희맹의 친필일기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그 친필일기가 현존하지 않지만, 선양정의 일기는 개인적 체험의 기록뿐만 아니라 동맹체가 작동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임은 바로 그 일기에 근거한 ≪수성록≫이 존재하고 있어 알 수 있다. <선양정 진사일기>나 ≪수성록≫을 통해, 그 핵심 기록은 적어도 후세에 산삭과 변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 가운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영광군수 남궁 견(南宮涓, 1538~?)이 모친상을 당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자, 1592년 10월 18일부터 1593년 2월 28일 남궁 견이 복직하여 수성(守城) 의병을 해산하기까지 약 5개월 동안의 기록이 동맹체가 작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주목된다. '수성명첩'이 동맹 결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동맹'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니 더구나 전쟁 통에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 터이다. 그렇다면 난리 속에서도 쉽게 하나로 결속되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전통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짚어보도록 한다.

Ⅲ. 임진왜란 속에서 작동한 전통적 공동체

<선양정 진사일기>에서 1592년 10월 18일부터 1593년 2월 28일까지 영광성(靈光城)을 지키려고 결성한 동맹체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바, 그

동맹체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조명하려고 한다. 공동체는 '장소,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성원들이 공유하는 소속감'[10]이라는 3가지 주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사회적 관계망은 '사적인 친밀성', 소속감은 '사회적 유대'로 이해된다.

1. 동맹체의 편제와 구성원 명부[名帖][11]

도별장(都別將)	생원(生員) 이응종(李應鍾, 71세)
부장(副將)	전 만호(前萬戶) 강태(姜泰)
종사관(從事官)	유학(幼學) 이홍종(李洪鍾)·이곤(李琨, 51세) 신장길(辛長吉, 50세)·정희열(丁希說, 54세)·임수춘(林遂春, 48세) 생원 이용중(李容中, 50세)
군정(軍正)	전 참봉(前參奉) 이굉중(李宏中, 56세)·유학 정희맹(丁希孟, 57세)
참모관(參謨官)	유학 이헌(李憲), 충순위(忠順衛) 이안현(李安鉉, 73세) 전 부장(前副將) 이옥(李玉, 61세), 유학 노석령(盧石齡) 류익겸(柳益謙)·김재택(金載澤)·정희열(丁希說) 봉단의(奉端懿, 55세)·임수춘(林遂春)
장문서(掌文書)	김태복(金泰福, 41세)·이분(李芬)·이극부(李克扶, 38세) 강항(姜沆, 26세)
폐막관(弊瘼官)	이용중(李容中)·이극부(李克扶)

10) 강의혁 외,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7면.
11) 정희맹 원저, 앞의 책, 45~46면.

수성장(守城將)	충순위 오귀영(吳貴英, 57세)
종사관(從事官)	충의(忠義) 김남수(金楠壽, 32세), 유학 정여기(丁汝璣)
도청서기(都廳書記)	유학 김구용(金九容)·정응벽(丁應壁)·오윤(吳玧, 40세)·정구(丁久)
대장군관(大將軍官)	정경(丁鏡)·류영해(柳永海, 32세)·이효안(李孝顔) 이극양(李克揚, 36세)·이극수(李克授)
부장군관(副將軍官)	김운(金雲)·류집(柳潗)·강윤(姜潤)
수문장 남(守門將南)	이희익(李希益)·강극효(姜克孝)
수문장 북(守門將北)	김대성(金大成)·이거(李琚, 52세)
중위장(中衛將)	최희윤(崔希尹)
중부장(中部將)	이희룡(李希龍)
유군장(遊軍將)	김찬원(金贊元)
외진장 서(外陣將西)	이효민(李孝閔)
외진장 남(外陣將南)	김춘수(金椿壽)
외진장 동(外陣將東)	한여경(韓汝璟, 49세)
종사관 서(從事官西)	김경(金慶)
종사관 남(從事官南)	이유인(李惟認)
종사관 동(從事官東)	김광선(金光選)
군관(軍官)	김정식(金廷式)·송약선(宋若先, 25세)·정여덕(鄭汝德)·정념(鄭恬)
수성군관(守城軍官)	강락(姜洛)·김봉천(金奉天)

위의 동맹체를 보건대, 영광을 지키자는 동맹을 맺은 후 읍성 방위와 행정업무를 자치적으로 수행하고자 각 부서의 책임자를 배정하여 수성군 방위조직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도별장(都別將)을 중심으로 한 편제의

명칭들을 보면 24개의 부서로 된 방위조직의 짜임새가 빈틈없었던바, 읍성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하면서도 남문과 북문을 수비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수문장(守門將)을 두었고 또한 유군장(遊軍將: 기동 타격대장)까지 두었다. 그리하여 읍성 방위에 철저히 대비하며 민심의 동요를 막은 것이다. 한편, <선양정 진사일기>나 ≪수성록≫에 기록된 '수성법(守城法)'은 송(宋)나라 증공량(曾公亮)의 ≪무경총요(武經總要)≫ <수성(守城)>편에 나오는 것을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독자적인 창안이 아니다. 다만 그것에 근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방위태세를 구축한 것이 의미가 있지, 마치 새로운 수성법을 마련한 양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위의 명부를 보면 59명에게 직임을 배정했으나 이극부, 이용중, 임수춘, 정희열 4명은 2가지 직임을 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두 55명이다. 각종 문헌이나 족보를 통해 그 당시 나이를 필자가 조사했더니 알 수 있는 사람이 22명인데, 70대 2명(9%), 60대 1명(5%), 50대 9명(41%), 40대 4명(18%), 30대 4명(18%), 20대 2명(9%)이다. 곧,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운데 50대가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왜적의 침략과 수령의 부재에 따른 읍성 방위라는 자구책을 마련하려는데 전(全) 세대가 하나로 의기투합했음을 알게 해준다.

2. 동맹체의 성씨별 구성원 양상

앞 절에서 살핀 동맹체에 참여한 55명을 성씨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별장(都別將) 이응종의 전주이씨(全州李氏) 집안에서는 동생 이홍종, 아들 이극부·이극양, 이홍종의 아들인 이극수 등 5명이다.

둘째, 부장(副將) 강태의 진주강씨(晉州姜氏) 집안에서는 종조카 강극효, 재종손자 강항, 종손자 강윤, 강극효의 아들 강락 등 5명인데, 세종 때 명신 강희맹의 후손들이다.

셋째, 종사관(從事官) 이곤의 함평이씨(咸平李氏) 집안에서는 4촌형제 이옥, 족친 이분 등 3명이다.

넷째, 종사관 이용중의 광주이씨(廣州李氏) 집안에서는 형 이굉중, 족친 이안현, 이안현의 조카 이거, 외사촌 김구용 등 5명이다.

다섯째, 군정(軍正) 정희맹의 압해정씨(押海丁氏) 집안에서는 동생 정희열, 아들 정경, 족친 정여기, 정응벽, 정구 등 6명이다.

여섯째, 대장군관(大將軍官) 이효안의 광산이씨(光山李氏) 집안에서는 백부 이희익, 부친 이희룡, 형 이효민 등 4명이다.

일곱째, 참모관(參謨官) 류익겸의 고흥류씨(高興柳氏) 집안에서는 아들 류집, 조카 류영해 등 3명이다.

여덟째, 참모관 김재택의 상산김씨(商山金氏) 집안에서는 족친 김남수, 김춘수, 김정식 등 4명이다.

아홉째, 수성장(守城將) 오귀영의 해주오씨(海州吳氏) 집안에서는 족친 오윤 등 2명이다.

열째, 수문장 북(守門將北) 김대성의 광산김씨(光山金氏) 집안에서는 족친 김찬원 등 2명이다.

열한째, 영월신씨, 장흥임씨, 전의이씨, 보성노씨, 하음봉씨, 부안김씨, 영광김씨, 수성최씨, 청주한씨, 신평송씨, 금성정씨, 진주정씨, 영산김씨, 미상(3) 등이다.

이처럼 동맹체에 참여한 이들을 단순히 각 성씨별로 나누고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자못 아쉽다. 성씨 분포 지역이라든가 그 분포 지역에서 타 성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간

적으로 연결지어 지리적 단위에 결부시키는 다양한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면, 영광지역에서도 어느 고을을 중심으로 참여하였고 그들의 다양한 관계망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적 한계로 인하여 대략 위와 같은 정도로 정리한 뒤 연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그 결과 어떤 성씨들이 참여했는가만 파악될 뿐이었다. 특정 지역의 성씨와 가문 정도만 파악하여 윤곽을 그려보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곧, 23개의 성씨가 참여했고 각 성씨별로 참여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본질은 이면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관계로 대의명분을 내세울지라도 쉽사리 할 수 없는 결속을 하도록 한 심층적 동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성씨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관계망이 존재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동맹체의 기저적 관계망

<선양정 진사일기>에 기록된 동맹체는 임진왜란 당시 영광군수 남궁견(南宮涀, 1538~?)이 모친상을 당하여 자리를 비운 동안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영광지역의 안위와 관련되어 맺은 결속체이다. 이 동맹체가 여러 성씨의 집안으로 결속되었음은 이미 살펴본바, 이제 그 기저에서 작동한 실질적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차례이다.

> 오성관(箕城館)에서 연회를 베풀고 차례로 앉자, 마침내 큰일을 의논하였다. 의견이 갑(甲)과 을(乙)로 나뉘면서 망령되이 나를 맹주(盟主)로 삼으려고 하였다.[12]

12) 위의 책, 42면. 그리고 "오늘의 일은 입신양명을 위한 거조가 아니외다. 다만 나라를 위하고 가문

위의 인용문을 보면, 1592년 10월 18일 동맹을 맺으려고 논의했을 때 정희맹을 맹주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이응종을 도별장으로 추대하였지만, 처음에 정희맹을 맹주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6월 11일자[13]를 보면, 정희맹이 영광지역에서 창의하여 도청(都廳)을 향교에 세우고서 여러 유사를 나누어 의병을 모집하고 의곡을 거두되 무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희맹을 맹주로 삼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표면적 이유를 뛰어넘는 핵심 동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통시대는 지역과 가문의 위상이 향촌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문을 이루고 연결시키는 혼맥이 중요한 지점으로 주목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해정씨 8세손인 정석필(丁碩弼)부터 그의 고손자까지 가족 및 혼인 관계를 밝히면 다음의 표와 같다.

8세	9세	10세	11세	12세
丁碩弼	1남 丁世光 / 문화류씨 柳彭碩	1남 丁琦(1507~1577) /선산김씨	1남 丁希顔 /보성노씨 盧大畜	1남 丁鎔 /진주강씨 姜革/광주이씨 李琚
				1녀 /姜瀣
			2남 丁希閔	1남 丁鐸
				1녀 /의성김씨 金曙(金齊閔 2남) 외손: 金地文, 金地粹
				2녀 / 고흥류씨 柳東信 외손: 柳鐵堅

을 보존하기 위한 계책이온데, 무릇 그 맹주라는 직임을 사양하며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패의라 할 수 있을 것이외다. 하지만 이 사람을 돌아보자면 온갖 병이 몸에 있어서 신음하며 병석에 쓰러져 있느라 세상일을 살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으외다. 격문을 내고 시행하는 것을 결코 스스로 감당할 뜻이 없으니,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명망이 높은 분을 상세히 살피고 가려서 맡기시기를 바라외다. 성을 지키고 지키비 못하는 것, 고을이 안정되고 안정되지 못하는 것 등은 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라고 사양했는데도 쉽사리 결의가 되지 않자, 정희맹이 좌중에서 비밀함을 만들어 돌리고서야 겨우 이응종이 도별장에 추대될 수 있었다.

13) 위의 책, 25면. 이에 따르면, 고경명의 광주 의병소에 의병 60명, 의곡(義穀) 25석, 장창(長槍) 30자루, 장검(長劍) 30자루, 강궁(强弓) 38장, 비전(飛箭) 600개를 보냈으며, 김천일의 나주 의병소에 의병 40명, 의곡 15석, 장창 20자루, 장검 20자루, 강궁 30장, 비전 400개를 보냈다.

8세	9세	10세	11세	12세
			3남 丁希說(1539~1612) /진주강씨 姜革	1남 丁鎭(1575~1626) /부안김씨 金泰福/여양진씨 陳翼臣/안동김씨 金景哲
				1녀 /함평이씨 李塡
				2녀 /張貴生
			4남 丁巖壽 /하음봉씨 奉端懿	
			5남 丁碩壽	
			1녀 /영원신씨 辛應時	辛慶晉
			2녀 / 申俊良	
		2남 丁瑗 /상당한씨 韓景春 /영광김씨	1남 丁大壽(1548~?)	
			2남 丁鐵壽	
			3남 丁眉壽	
		3남 丁珣 광산김씨 金昌老	1남 丁希孟(1536~1596) /여산송씨 宋瑗	1남 丁鏡
				2남 丁鍵 /진주강씨 姜克讓/고흥류씨 柳奇孫
				3남 丁鈇 /고흥류씨 柳慶邦/진주강씨 姜洪
				4남 丁鈗 /영월신씨 辛長吉
				1녀 /진주정씨 鄭敏得
			2남 丁希參 /전주이씨 李仁壽	1남 丁鎰 /황주변씨 邊得中/전주이씨 李聖任
				2남 丁鍊 /죽산안씨 安慶覃
				1녀 광주이씨 李挺 외손: 李慶雲
				2녀 고흥류씨 柳澳 외손: 柳興世
	2남 丁世榮	1남 丁岑		
		2남 丁瑜 /진주강씨 姜益		
	3남 丁世明	1남 丁璿	1남 丁士彦(1534~?) /전주이씨 李鳳	*이봉의 4촌 李鶴 *이학의 아들: 李應鍾, 李黃鍾, 李洪鍾
			2남 丁士德	

이 압해정씨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동맹에 참여한 55명과의 혼반(婚班) 관계를 조사해본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주이씨와는 이홍종이 정희맹의 6촌형인 정사언(丁士彦)의 처당숙이 된다.

진주강씨와는 강태가 정희맹의 4촌동생인 정희열의 처삼촌이 되고, 강항이 정희열의 처손자이자 정건의 처조카가 된다.

함평이씨와는 이옥이 정희맹의 족매부이고, 이분이 압해정씨의 사돈가가 된다.

광주이씨(廣州李氏)와는 이굉중이 정희삼의 사돈이고 이용중이 정희열 처남의 사위이며, 이안현이 정희맹의 족고숙이 된다. 또한 김구용이 이굉중과 이용중의 외4촌이다.

광산이씨와는 하음봉씨 봉단의가 정희맹의 4촌동생인 정암수의 장인인데, 하음봉씨의 딸이 바로 이희익과 이희룡의 어머니이고, 이효안과 이효민의 할머니이다.

고흥류씨와는 류익겸이 정희삼의 사돈이다.

영광김씨와는 김운이 정희맹의 둘째 백모 친정가이고, 김운은 최희윤과 처남매부이며 최희윤은 김대성과 이종4촌간 처남매부이다.

이외에도 부안김씨 김태복이 정희열의 아들인 정진의 장인이며, 보성노씨 노석령이 정희안의 처남이며, 영월신씨 신장길이 정희맹의 아들들인 정건과 정익의 사돈가이며, 해주오씨 오귀영이 압해정씨의 사위이고 오윤이 압해정씨의 외손이며, 전의이씨 이헌이 압해정씨의 외손이며, 장흥임씨 임수춘이 압해정씨의 사돈가이다.

요컨대, 동맹체의 구성원 가운데 압해정씨와 혼인 관계로 맺어진 이는 42명(76%)이나 되며, 확인할 수 없는 이가 13명에 불과하다.[14] 이를 바꾸

14) 이 결과는 오늘날 각 집안에서 전해오는 족보를 통해 확인한 것일 뿐, 족보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

어 말하자면, 전란 속에 영광지역 방어를 위한 편제를 갖춘 동맹체가 결속될 수 있었던 기저적 관계망이 바로 혼반 관계에 기반한 연결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 혼반을 기반한 공동체의 층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공동체, 광역 공동체(호남 지역 등), 군(郡) 단위 공동체, 성씨 혼반 공동체 등을 상정하여 가늠할 수 있을 것인데, 압해정씨 혼반 공동체 가운데서도 '왜란이 한창인 가운데 군수가 부재한 영광성을 지키자.'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한 결속체가 바로 동맹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곧,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 지역 공동체의 관계망이 한시적인 동맹체로 결성될 수 있었던 심층적 동인이라 하겠다. 혼반은 공동체 관계의 연대를 공고히 구축하는 요소로 작동한 것이다.[15]

4. 동맹체의 사회적 유대

임진왜란 당시 영광군수 남궁 견(南宮涓)이 10월 2일 모친상[16]을 당하여 자리를 비운 동안[17], 동맹체는 향교의 유림들을 중심으로 영광성을 지

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압해정씨와의 혼반 양상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15) 공동체와 동맹체에 대한 변별점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목적성과 소멸성의 여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점차 관계적 친연성이 강화되고서 그 관계성이 쉬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동맹체는 처음부터 특정한 조건과 목적 하에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그 목적이 달성하고는 결국 쉽게 소멸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보편적 연대성 여부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는 타자와의 긴밀한 공감과 유대를 통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동맹체는 특정 경계의 밖에 대해 외면하거나 배척하면서 그 경계 안의 이해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전통적 공동체 토양 위에 다양한 목적적 결사체 내지 결속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비유하자면 허허벌판 위에 그 무엇인가 자유롭게 짓도록 좀 남다르게 다져놓은 대지를 공동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곧 그 대지는 혼맥으로 다져놓은 것으로 보았다.

16) 정희맹 원저, 앞의 책, 39면.

17) 위의 책, 51면. 11월 6일의 일기에 李安繼가 새 영광군수로 임명되어 영광군에 도착하였지만, 11월 7일의 일기에서 체찰사 정철의 관문을 통해 임명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기실 이안계는 10월 25일 임명되어 11월 6일에 도착했다가 취소되어 다음 날인 7일에 되돌아간 것이다. 또한 이날

키기 위한 수성(守城) 조직으로서 치밀하게 구성된 결속이었다. 전쟁 속의 동맹체는 분명 의병 활동의 일환이다. 관군이 국가와 군주 및 백성들의 생명을 보전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 의병은 자신이 태어나 숨 쉬며 자란 곳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관군 대신 스스로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민간 자위군이라 할 것이다. 영광성 수성 동맹체도 역시 같은 성격을 지닌 의병 활동이었다. 이들은 활쏘기 훈련[18]도 하였고 군사들을 점고[19]도 하였지만, 1593년 1월이 되자 지키고 있어야 할 곳을 이탈[20]하기도 하였고, 회의에 불참[21]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의병 활동이 우국 의식에 기반하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한 의병들에게 위기가 해소되었다는 심리적 자부심이 작동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영광은 왜적의 진격로에서 벗어나 있어 전쟁을 통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소했다고 하는 심리적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었던지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하거나 불참한 모습이 드러남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전란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목적성을 망각해간 것이라 하겠다. 결국 동맹체의 이완 현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했음에도 주목되는 것은 의병이 지닌 본질적 속성인 향토방위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과의 유대(또는 연대) 활동이다. 11월 3일[22] 일기를 보면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郭再祐)가 군량을 요청하는 서찰을 받았고, 12월 15일[23] 일기에서 “일전에 나누어 배정한 의곡(義穀)을 거둔 것이 겨우 10석

에는 10월 13일 임시군수로 삼았던 李邦柱도 임지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남궁 견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란 속에 고을수령이 장기간 공석이었던 셈이다.

18) 위의 책, 59면, 12월 28일.
19) 위의 책, 59면, 12월 29일.
20) 위의 책, 60~61면, 1월 2일.
21) 위의 책, 61면, 1월 3일 ; 65면, 2월 10일.
22) 위의 책, 51면.
23) 위의 책, 56면.

을 채웠고, 영광성을 지키는데 쓸 양식으로 덜어놓은 것이 10석이었으니 합계 20석이었다. 8마리의 말과 10명의 인부로 하여금 남원에 운송하게 하였는데, 곽재우의 의병군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아울러 답하는 편지도 부쳤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24] 영광성을 지키려는 수성 동맹체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쉬 이해할 수 없는 바이나, 공동체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결속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유림(儒林)은 역사에 대해서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임하거나 선택한 자들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 절의와 명분을 높이 여기는 분위기, 사회적 실천에 대한 열정, 관리와 사대부를 가리지 않는 계급적 일체감, 체제수호와 계급이익의 수호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역사적 조건 등이 전제되어 있"[25]기 때문이다.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길 속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되어 있지도 않은 국가와 군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혼반에 기반한 관계망을 통해 수행하려 한 것이 바로 영광성에 대한 자발적 수성이었다.

결국 전통적 공동체도 다양한 모습을 지닐 것이지만, 선양정 진사일기에서는 임진왜란을 맞아 혼반(婚班)을 기반으로 이미 구축되었던 공동체의 연결망이 작동되어 한시적으로 향토방위를 위한 동맹체가 결성될 수 있었다.

---

24) 위의 책, 37면. 9월 16일 일기를 보면, "의곡 1석을 법성포로 실어 보내자 유사 이굉중, 이용중, 이홍종, 이극부가 의곡으로 받았으며, 의곡대장 기효증이 인근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쌀을 행재소(行在所)에 배로 실어 날랐다. 일전에는 장편전(長片箭) 10개와 흰쌀 5되를 합쳐서 향교의 인편으로 의병소에 보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세사회의 윤리의식에 따른 헌신이라 할 것이다.

25) 윤천근, 「의병, 의병문화, 의병정신」, 『민족문화와 의병사상』 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6, 13면.

Ⅳ. 전통적 공동체의 특징 및 앞으로의 과제

<선양정 진사일기>의 동맹체는 혼반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가 특수한 시기와 상황에 직면하여 발현된 결속체임을 살폈다. 곧 농업을 기반으로 한 중세사회에서 유동적이 아닌 정주적(定住的) 농촌 지역에서는 혼반의 전통적 공동체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고을수령의 부재로 인하여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공동체가 작동되어야 했던 특징이 있다. 한 개인을 사회와 동떨어진 추상적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공동체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진 존재로 본 것과 다름없다. 혼반은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지니며 그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을 표명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시대에서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전통 윤리적 토대의 상실, 고도산업 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동요,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에 비롯된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의 논의를 할 때 그 원형으로서 전통적 공동체의 실상을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간 전통사회에서의 혼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공동체는 누구나 선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 서구의 커뮤니티 이론에 빠져 근대 이후의 공동체를 그에 조응하는 것으로 치환하려는 태도는 공동체의 연원 및 그로부터 통사적으로 이루어진 자기 갱신 양상을 추적하는 인문학에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인문학에서 공동체를 학문적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막상 그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요구하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또한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는바, 진지한 논의장에서 그 핵심을 짚어낼 필요가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그리고 실기문학은 미리 결정된 연구 패러다임을 따르기보다 본래의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관찰하고 반응하고 이해하는 것에 우선하여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실기문학은 그 속성상 직접적인 경험의 기록이거나 훗날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의 재현인 추체험 기록임은 분명하다.[26] 실기문학은 무엇보다 개인의 기록과 기억에서 그치는 차원이 아닌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인간의 형상을 통해 현재를 반추하는 도구로 현재에 소환될 수 있다. 따라서 실기문학 속에 담긴 전통적 공동체의 자화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실기문학은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상이자 도구로 환기될 수 있고, 도처에 존재하는 무수한 실기문헌은 보다 많은 관심을 통해 발굴, 소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6) 하지만 현존하는 실기문학의 유산은 전대문헌(前代文獻)의 전재(轉載) 양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곧, 『검간 임진일기』·『검간 임진일기 자료집성』(신해진 역주, 조정 원저, 보고사, 2021)과 『만휴 황귀성 난중기사』(신해진 역주, 황귀성 원저, 보고사, 2021)가 참고된다.

|참고문헌|

강의혁 외 4인 역, Tony Blackshaw 저, 『커뮤니티 연구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21.

신해진 역주, 정희맹 저, 『선양정 진사일기』, 보고사, 2020.

신해진 역주, 조정 저, 『검간 임진일기』, 보고사, 2021.

신해진 역주, 조정 저, 『검간 임진일기 자료집성』, 보고사, 2021.

신해진 역주, 황귀성 저, 『만휴 황귀성 난중기사』, 보고사, 2021.

윤천근, 「의병, 의병문화, 의병정신」, 『민족문화와 의병사상』 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96.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Community that Worked During the Limjin War

- targeting <Seonyangjeong Jinsa Diary>

Shin, Hae-jin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factual records literature(實記文學) to grasp the reality of communities worked in traditional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communities that reveal various aspects in the present era. Accordingly,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collection of writings and the contents of the diary were analyzed for Jeong Hee-maeng(丁希孟)'s <Seonyangjeong Jinsa Diary(善養亭 辰巳日記)>. In addition, during the Imjin War(壬辰倭亂), the traditional community was worked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and discussions were developed by presenting future tasks.

The ≪Seonyangjeongmunjip≫, which contains the <Seonyangjeong Jinsa Diary>, was published in 1875 as a first edition, and before that, a part of the <Seonyangjeong Jinsa Diary> was included in the ≪Suseongrok(守城錄)≫ and was published in 1753.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Suseongrok≫ were descendants of 55 righteous army soldiers who were creative during the Imjin War.

According to the postscript, it can be seen that Seonyangjeong's diary was based on a handwritten diary, and this shows that the alliance as well as personal experience records. <Seonyangjeong Jinsa Diary> describes the recruitment of righteous army soldiers and the procurement process of military rice centered on the Confucian scholars in Yeonggwang(靈光), and at this time, Jeong Hee-maeng was in a key position.

The alliance recorded in the <Seonyangjeong Jinsa Diary> was united when the governor of Yeonggwang-gun(靈光郡) was vacant at the time, and it was identified where the in-depth driving force that united them in the special situation of war wa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42 out of 55 people had a marriage relationship(婚班) with Abhae Jeongssi(押海丁氏), indicating that the factor lies in the network based on the marriage relationship. This alliance is characterized by a temporary working to protect its own hometown from the danger of war due to the absence of the head of the town. In light of these cases, the task given to us is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ituation we belong to through self-portrait of the traditional community contained in factual records literature and to look back in various perspectives a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Key words : Imjin War(壬辰倭亂), Seonyangjeong Jinsa Diary(善養亭 辰巳日記), Jeong Hee-maeng(丁希孟), communities, alliance, a marriage relationship(婚班)

신해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hjshin@jnu.ac.kr

이 논문은 2022년 2월 25일 투고되어 2022년 4월 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4월 12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